

영어철자 I/Y의 교체에 관한 통시적 분석*

이 동 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yes, beyond의 <y>와 kiss, like의 <i>는 전혀 다른 발음을 표기하지만 study, studied에서는 두 문자가 같은 음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설명은 이 현상을 피상적인 규칙으로 나타낼 뿐 그 이유는 밝히지 못한다. 본 연구는 통시적인 분석에 의해 두 철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y>는 애당초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였으며 원순 자질을 상실함에 따라 <i>와 음가가 겹치게 되었고 표준철자가 확립되는 18세기까지 두 글자 사이의 경쟁은 이어졌다. 현대영어의 철자법 원리에는 철자에 관한 제약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y>는 <i>와의 모음으로서 주도권을 잡는 경쟁에서는 졌으나 <i>를 쓸 수 없는 여러 환경에 사용되어 영어 철자의 묘미를 더 해 주고 있다.

▮주제어▮ 문자 <y>, <i>와 <y>의 교체, 철자의 표준화, 철자 제약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dkleee@knou.ac.kr

많은 영어 단어에서 어말(word final) 위치의 <y>는 굴절어미가 첨가되면 <i>로 교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어 학습자들은 try라는 한 단어가 try, trying, tried, tries로 모음의 철자가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apply, marry, luxury 등의 다음절 단어에도 적용되며 파생어미가 뒤에 올 때도 나타난다. trial, appliance, marriage, luxurious가 보여 주듯 -al, -ance, -age, -ous의 접미사가 첨가되었을 때 <y>를 <i>로 바꾸지 않으면 틀린 철자가 된다(*tryal, *appliance, *marriage, *luxurious).

이 현상은 익히 알려져 있어 영어학습서와 문법서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말 Y 규칙’으로 종종 명명되는 관련 규칙은 “어미가 첨가될 때 <y>를 <i>로 바꾼다”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어미와 <y>가 어울리지 않아서라고도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이 규칙의 적용에는 다양한 예외들이 존재하여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y>와 <i>의 교체에 관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본 논문이다. 그 답은 두 문자의 역사적 변화에 들어 있다. 영어의 철자는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영어의 철자는 일견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민들은 바른 철자와 틀린 철자를 쉽게 구분한다. <y>가 어말이 아닌 위치에서 <i>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을 밝혀 보기로 하자.

2 역사적 배경

먼저 <y>의 자음 철자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자. 현대영어에서 (반)자음 /j/는 주로 <y>로 표기되는데 이는 모음 철자와는 별개의 역사에 기인한다. 고대영어시대까지 경구개 전이음 [j]는 <g>로 표기되었다.¹⁾ 이는 이 발음이 /g/ 음의 이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OE gear ‘year’, gif ‘if’).²⁾ 중세영어 이후 아이리쉬 알파벳(Irish alphabet)인 yogh로 불리는 <3>가 들어와 이 소리에 쓰이다 후기 중세영어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13세기 중엽부터 형태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3>가 <y>로 바뀌게 되었다(3ear > year). 이것이 현대영어에서 <y>가 자음의 역할을 확보하게 된 유래이다.

철자법이 확립되기 전의 영어에는 모음과 자음의 구별이 모호한 쌍들이 있었다. 예컨대, <i>와 <j>, <u>와 <v>는 지금이야 둘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예전에는 모음과 자음에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Iack ‘Jack’, vnder ‘under’, euil ‘evil’). 18세기 이후 이들은 현재와 같이 모음과 자음으로 명확히 분리되었지만, 이 기준이 성립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i>와 <y>이다. 전자는 모음 후자는 자음이라 구분하지만, 모음으로는 둘이 번갈아 가며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y>가 <i>를 대신할 수 있

1) 본 논문에서 철자는 < >, 음소는 / /, 이음은 [] 안에 표기한다.

2) 사실 /g/의 정확한 고대영어 철자는 도서체 문자인 <ǵ>였다(OE ǵold ‘gold’, ǵlæd ‘glad’).

게 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2.1. 모음 문자 <y>

문자 <y>와 <i>의 관계는 고대영어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y>는 고대영어시대부터 <a, æ, e, i, o, u>와 함께 엄연히 단독으로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였다. 다른 모음들은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와 근접하게 발음되었으나 이 철자의 발음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달랐다. 고대영어의 <y>는 단모음 장모음을 막론하고 원순전설모음(rounded front vowel) /y/를 나타내었다. 현대영어에서는 사라진 이 음은 /i/의 혀 위치에서 입술을 둥글게 하여 소리나는 음으로 현대 독일어 Lüge ‘lie’, fünf ‘five’의 첫 모음 발음과 같다. 따라서 fyllan ‘to fill’, mȳs ‘mice’와 같은 고대영어 단어에서 <y>는 현대영어와 달리 원순모음으로 소리 났다.³⁾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영어에서는 <ie>로 철자되는 이중모음이 있었는데 후기 고대영어에서 이 철자가 사라지고 <y>로 대체되었다. 이 역사적 인연은 훗날 <ie>와 <y>의 연관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중세영어로 접어들면서 고대영어의 <y>로 철자되는 음들은 비원순화(unrounding)을 겪게 된다. 즉, 800년 이후 북부(Nothern)와 동남부(East Midland)를 중심으로 원순 자질이 퇴화하기 시작하였고, 중세영어로 접어들면서 <y>는 자신의 독특한 변별적인 모음 음가를 상실하고 /i/와 소리가 같아지게 된 것이다.

이 변화에 의해 고대영어(OE)의 원순전설 모음으로 발음되

3) 모음 위의 짧은 줄(y)인 매크론(macron)은 장모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던 <y>에서 중세영어(ME) <i>로의 대규모 전환이 일어났다.⁴⁾

- (1) OE brycg > ME brigge ‘bridge’,
- OE cycene > ME kichen ‘kitchen’,
- OE cyssan > ME kisse ‘to kiss’
- OE brȳd > ME brīd ‘bride’,
- OE fȳr > ME fir ‘fire’,
- OE hȳden > ME hīden ‘hide’,
- OE mȳs > ME mīs ‘mice’

그 결과 영어는 게르만어적인 성격의 모음인 [ū]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 전설 비원순 모음을 표시하던 <y>의 기능이 사라졌지만 모음 철자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발음이 중복됨으로서 문자 <i>가 가지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쓰이게 된다. 예컨대, 고대영어의 wip ‘with’가 중세영어에서 wyþ로 철자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y>는 중세영어에서 단모음뿐 아니라 장모음 /i:/를 표시할 때도 나타났다(combine ~ combyne, describe ~ descrybe, fine ~ fyne, shine ~ shyne, knight ~ knyght, nigh ~ nygh).⁵⁾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y>는 모음 철자로서 <i>와 거의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였다.⁶⁾

4) bury(⟨OE byrgan)의 경우는 방언에 따른 결과이다. 이 단어는 중세영어에서 지역별로 birie(n)/burie(n)/berie(n)로 다르게 발음되었는데 철자는 서남부방언의 ⟨u⟩, 발음은 동남부의 켄트 방언의 /e/를 따라 현대영어에서 독특한 철자를 가지게 되었다. evil은 어원으로 볼 때 OE yfel에서 유래하여 ivel이 되어야 하나 동남부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5) 현대영어에서 이들의 실지 발음은 /ai/이지만 철자는 중세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므로 /i:/를 표기하는 것으로 본다. 대모음추이(the Great Vowel Shift)의 영향으로 현대영어 장모음의 발음은 철자와 완전히 다르다.

<y>의 용도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중세영어시대에 모음 뒤에서 반자음인 /j/ 음 (철자는 <g>)의 모음화(vocalization)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ai/, /ei/와 같은 이중모음을 탄생하게 한 변화이다. 모음화된 철자에는 <i>가 쓰였지만 <y>로도 자주 표시되었다.

- (2) OE *sægde* > ME *saide* ‘said’,
OE *weg* > ME *wey* ‘way’

이 밖에 고대영어에서 <ig>로 철자된 단어들도 중세영어 이후 바꾼 철자 모습에도 <y>가 등장한다.

- (3) OE *hungrig* > ME *hungry*,
OE *dysig* > ME *disy* ‘dizzy’
OE *twēntig* > ME *twenty*,
OE *ftig* > ME *fifty*

이런 단어들에서 <i>와 <y>의 교차 사용은 17세기까지 허용되었으며 표준 철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이후 모음을 나타내는 철자로는 점차 <i>가 우세를 점해 간다. 하지만 둘은 동일한 모음이라는 인식이 영어 철자법의 원리에 들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외견상 전혀 닮아 보이지 않는 <i>와

6) 중세영어 시대 작가들의 작품명에는 <i>와 <y>의 선호도가 드러나 있다 (Venezky (1976, 356)):
Owl and the Nightingale, vs. Ayebite of Inwyt, Sir Gawayn and the Grene Knyght.

<y>가 현대영어에서 호환성이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i> 철자를 가진 많은 단어들 이 이전에는 <y>로 표기되었으며, <y>는 <i>와 나란히 쓰이며 대체 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2.2. 소획문자(minim letters)

고대영어에서 가졌던 모음 음가를 잃게 된 <y>는 중세영어 시대 <i>를 대신하는 환경을 계속 개척해 나갔다. 작은 획들로 이루어진 <i> <u>, <m>, <n>와 같은 소획문자가 연이어 쓰일 경우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경우 <y>는 훌륭한 대체 수단이 되었다. 예컨대, 고대영어로부터 이어 내려 온 일인칭 소유격형은 min이었으나 필사체로 적힌 <m><i><n>이 연속된 형은 철자 사이의 구분이 힘들어져 <i>를 <y>로 교체하게 되었다(OE mīn > ME mȳn). 중세영어시대 어말 -n의 탈락과 함께 현대영어의 my는 이렇게 탄생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이 두 단어 간의 역사적 관련성이 바탕이 되었다. 두 철자 사이에 발음의 공통성이 없었던들 아무리 시각적 편의성을 위함이라지만 <y>가 사용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⁷⁾

소획문자의 환경에서 나타난 <y>는 중세영어 이후 초기현대영어시대까지 <i>와 함께 나란히 사용되게 되다(king ~ kyng, wille ~ wylle, fruit ~ fruyte), 18세기 어중에서 <i>를 선호하는 철자법이 확립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소획문자는 아니나 saieth ~ sayeth와 roial ~ royal의 철자 교체도 연이은 모

7) 소획문자 환경에서 쓰인 <u>에서 <o>로의 교체도 비슷한 성격이므로 참고할만하다. OE sunu > ME sone 'son', OE cuman > ME come(n) 'to come'

음 문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각적 방편으로 보인다.

2.3. 중세영어 차용어의 철자

노르만 정복의 결과 중세영어에는 고대프랑스어(OF)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프랑스 차용어들이 유입되었다. 이들 어휘들의 어말 /i/ 음은 16세기까지 -ay, -aye, -ey, -ye, -ie, -ee, -e, -y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이들은 영어에 들어와 -ey나 -ye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후에 어말 비강세 모음의 schwa로의 약화 후 탈락에 의해 <y>만 남는 계기가 된다.

(4) OF armee > ME armey ‘army’

OF estyduer > ME stydye ‘study’

OF carier > ME carye ‘carry’

또한 프랑스어에서 어말 <ie>를 가졌던 단어들도 많이 차용되었다.

(5) OF glorie > ME glorye ‘glory’

OF fantasie > ME fantasye ‘fantasy’

OF librarie > ME librerye ‘library’

이들은 현대영어에서는 모두 <y>로 철자 되지만 16세기까지 <ie>와 <ye>의 철자가 모두 가능하였다. 유사하게 프랑스어에서 -e로 끝났던 city, county, duty, difficulty 등의 단어들은 -ee (15세기), -ie, -ye (16세기) 등의 여러 형으로 나타났다.

(6) OF cité > ME cite(e), citie, citty, cyte ‘city’

OF qualité > ME qualitie, qualitye ‘quality’

한편 money, journey, valley, alley와 같이 현대영어에서 어말이 <ey>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중세영어형들은 후기로 갈수록 -eye의 형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e만 탈락시키고 나머지 어형은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7) OF monoye > ME monie, moneie, monaye > moneye
‘money’

OF valée > ME val(l)ieie, valay > valeye ‘valley’

어미의 역사적인 변천으로 볼 때 단모음 /i/의 표기로 어말의 <ey>는 <y>와 다를 바 없었다. 간혹 이 둘은 지역별 변이로 미국과 영국철자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story (AmE), storey (BrE)).

어말의 장모음 /i:/ (후에 [ai]로 변함)의 중세영어 표기는 <i(e)>, <y(e)>가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8) OF satisfiier > ME satisfi(e), satisfy(e) ‘to satisfy’

OF moutepliiier > ME multipli(e), multiply(e)

‘to multiply’

중세영어는 /i(:)/ 발음으로 끝나는 프랑스 차용어가 밀려 들

어은 시기였다.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철자법이 존재하였으나, 그 중 <y>가 어말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현대영어 철자법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2.4. 철자의 표준화

영어의 일관성 없는 철자(inconsistent spelling)는 중세영어 시대 내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5세기 초반 런던의 공문서보관소(Chancery)에서 방언형들을 반영하지 않고 자주 쓰이는 일관된 형 위주로 철자를 사용하여 표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15세기 말 Caxton의 인쇄술 도입으로 철자의 고정화가 시작되었다. 표준화된 철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영어 철자의 부적절함과 비논리성을 비판하며 철자개혁자들이 나섰다. Sir Thomas Smith, John Hart, William Bullokar 같은 학자와 교육자들은 철자와 발음의 괴리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특수기호(diacritics) 사용법을 제안하는 등 개선에 힘썼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가 다루는 <i/y> 철자의 사용법의 표준화에 관해서는 16세기의 대표적 교육자이자 학자인 Mulcaster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Johnson의 사전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755)이 출판된 18세기에는 ‘long s’/(trict ‘strict’, fenfe ‘sense’) 등의 일부 예를 제외하고는 철자형이 이미 현대 영어 체계와 거의 동일하여, Mulcaster의 주장은 <i>와 <y>의 구분에 관한 표준 철자법이 자리 잡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는 ‘a book which entreated chiefelie of

the right writing of our English tung’이라고 소개한 *First Part of the Elementarie* (1582: 114)에서 <i>와 <y>를 바르게 다루는 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9) I, besides the time and tune thereof noted before, hath a form sometime vowellish, sometime consonantish. In the vowellish sound either it endeth a former syllab or the verie last. When it endeth the last, and is it self the last letter, if it sound *gentlie*, it is qualified by the e, as manie, merie, tarie, carie, where the verie pen, will rather end in the e, then in the naked I. If it sound *sharp and loud*, it is to be writen with y, hauing no, e, after it, as neding no qualification, deny, cry, defy.

그는 우선 단모음 <i>가 어말에 올 경우 <e>를 동반하여 <ie>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사어미 -ly가 16세기 *gentlie*, *earlie*, *reallie*, *hardlie*, *certainlie*와 같이 흔히 표기되는 것은 이런 권고를 따른 것이다. <ie>는 현대영어에서 <ee>의 변이형 철자로 장모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하지만(*believe*, *chief*, *piece*, *thief*), 초기현대영어시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말에서 단모음 /i/를 나타내는 대표적 철자였다. 반면, 장모음일 경우는 <y>로만 써야 한다고 하였다. 중세영어까지 *cry*와 같은 단어는 *cri*, *crie*, *crii*, *crij*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었다.

그는 이어 *Mulcaster* (1582, 118)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0) Y, ... Vowellish either to expresse Greke enfranchisments, as syllabs, polysyllabs, tyran: or English naturalls, which is in thré places. First when onei, followeth another immediatlie in the midle of a word, the former is to be expressed by a y, as replying, multiplying, denying, bying. Secondlie the shrill ending i, ought to be a y, as deny, aby, defy. which y maie passe with them in their deriuation, as denyeth abying, defyance, tho where another i, followeth not, the shrill i, of it self maie suffise, as, denied, defiance.

여기서 syllabs, polysyllabs, tyran와 같은 단어는 그리스 어 원임을 보여 주기 위해 <y> 철자가 모음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영어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어미첨가의 결과 <i> 뒤에 또 다른 <i>가 따를 때 <y>로 표기해야 한다는 관찰은 <i>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규칙에 해당된다. 그가 16세기에 세운 이 원칙은 현대영어까지 지켜지고 있다. 어말의 장모음에 어미가 첨가되었을 때는 denyeth, defyance처럼 <y>를 유지할 수도 있고 denied, defiance처럼 <i>를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현대영어는 이 중 후자를 선택하였다.

영어 어휘에 관한 최초의 사전으로 알려진 Cawdrey의 *A Table Alphabeticall of Hard Words* (1604)는 Mulcaster의 <ie>와 <y>에 관한 제안과 달리 형용사파생 부사형성어미 -ly가 현대영어와 같은 식으로 abruptly, artificially, yearely으로 나타나

는 예들을 수록하였다. 사전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좋은 실증적 자료가 된다. Scragg (1974, 71)가 기술한 것처럼 단어의 중간에서 <i>와 <y>가 번갈아 쓰이고, 어말에서는 <y(e)>, <ie>가 각축하는 시기가 당시 한동안 지속되었다.

Brengelman (1980, 334)은 철자가 무질서에서 벗어나 표준화되고 규칙화된 시기를 17세기 중반이라 했으나, 사실상 17세기는 <i>와 <y>의 모음으로서의 철자법상 구분이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defy ~ defie, glorify ~ glorifie, body ~ bodie, city ~ cittie, family ~ familie 등의 셰익스피어 영어 시대 예에서 보듯이 <ie>와 <y>는 공존하고 있었다. 18세기 초반을 지나서야 어말 위치에서 장단모음 /i/의 철자는 모두 <y>로 굳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어말이 아닌 나머지 위치에서는 bible ~ byble, contain ~ conteyn 중 <i>가 표준형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역사와 두 철자 사이의 균형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초기현대영어에서 aspier, desier, paradies, sacrificies 등은 aspire, desire, paradise, sacrifice로 각각 변화하여 silent ‘e’와 함께 쓰이는 <i> 철자가 정착된다.

중세영어 때 유입된 /oi/ 역시 <oi>와 <oy>가 둘 다 17세기까지 사용되다 (joie ~ joye ‘joy’, coin ~ coyne, moist ~ moyste, noise ~ noyse, poison ~ poysun) 어말에서만 <oy>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oistre ~ oyster의 경우처럼 현대 영어에서 <oy>를 택한 단어들은 프랑스 차용어(foyer, voyage, flamboyant)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I/Y 철자규칙의 재해석

이런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영어로 돌아와 보자. 발음상으로 현대영어에서 <i/y>는 어느 상황에서나 같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11) mitt, myth; Jim, gym
ripe, type; rime, rhyme

구개음화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opinion, brilliant에서도 <i>가 반자음 /j/의 철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i>와 <y>가 동일 환경에 사용된다는 것은 영어 학습자들의 철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주기 쉽다. 더구나 멀쩡히 <y>로 끝나는 단어가 어미변화 시 <i(e)>로 변화하고, <ie>에 어미가 붙을 때 다시 <y>로 바뀌는 등의 규칙은 외우기에도 벅차다. 통시적 분석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우연적이 아님을 포착하여 이 현상의 성격 규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3. 1. 어말 Y 규칙

영어 철자법에 “영어의 단어는 <i>로 마치지 않는다(English words do not end in I)”라는 원칙이 있다. 물론 <i>가 어말에 오는 단어들이 제법 있기는 하나 이들은 대부분 자주 쓰이지 않는 외래어이다.

- (12) alibi, bikini, broccoli, calamari, chai, chili, graffiti, macaroni, martini, khaki, kiwi, origami, rabbi, spaghetti, stimuli, sushi, taxi, tsunami

본 연구에서는 이 원칙을 <i/y>의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다. 원어민들은 이런 단어들은 일반적인 영어 어휘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린다. 지명에서 등장하는 Mississippi, Miami, Hawaii 등은 인디언어에서 유래하였고 Helsinki도 다른 나라의 수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ski와 같은 단어도 외래어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고, 예상대로 이 단어는 스칸디나비아어 계통의 노르웨이어에서 유래하였음이 밝혀진다. 일상어로 <i>로 끝나는 경우는 비격식체의 표현이나 단축이 일어난 단어에 그친다(Hi, Wifi).

어말의 <i>가 영어답지 않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방법은 뒤에 silent <e>를 덧붙이는 방법이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규칙인 <u>나 <v>가 어말에 오는 것을 방지하는 철자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u>, <v>도 특별한 경우(impromptu, rev) 외는 어말에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아 <e>를 추가한다(hue (*hu), blue (*blu), live (*liv), active (*activ)).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영어는 이미 역사적으로 <i> 뒤에 <e>를 붙인 어말 <ie>를 시험해 본 바 있다. 아래는 1820년에서 2019년 사이의 자료를 모은 미국영어 통시 코퍼스인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에서 어말 <ie>가 나타나는 빈도수 상위 100 단어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 (13) die, lie, movie, tie, prairie, pie, vie, Birdie, Barbie, Charlie, Rookie, Willie, Mickie, Eddie, Jackie, Johnnie, Scottie, Teddie, Jamie, Jessie, Leslie, Marie, Mckenzie, Annie, Marie, Minnie, Julie, Bessie, Lizzie, Katie, Sophie, Natalie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장모음을 가진 단어들을 빼면 대부분 고유명사라는 것이다. 고유명사들도 Billy, Eddy, Johnny, Jessy와 같은 이름들의 애칭이 많다. movie는 원래 이 모습이 아니라 moving picture에서 단축에 의해 나온 단어이며, prairie는 18세기에 들어온 프랑스 차용어이다.⁸⁾ 일반적인 어휘면서 단모음 /i/가 <ie>로 어말에 표기되는 단어는 흔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대영어 빈도수로 볼 때 어말 <ie>는 <i> 보다는 나오나 이 역시 현대영어 단모음 /i/의 표기로 단어의 끝에 나타나기에는 자연스러운 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말 <i>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y> 뿐이다. 역사적으로 이 철자는 <i(e)>의 대체 철자 구실을 톡톡히 해왔고 그럴 자격도 충분히 있다. 단어의 끝에서 발견되는 <i/y> 교체현상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철자표준화의 결과이다. <y>는 <ie>와의 경쟁을 이겨내어 현재의 어말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영어는 최적(optimal)의 철자법을 추구해 왔으며 어말 <i>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자 이의 해소

8) cookie (<cookies>), brownie (<brownies>)는 역형성(backformation)으로 만들어졌고 hippie는 속어(slang)이다. <ie>는 스코틀랜드에서 쓰이는 <y>의 지소형 접미사(diminutive suffix)이기도 하다(doggie, beastie, goalie).

방법으로 <y>를 선택하였다.⁹⁾

대개의 일반 문법서나 영어학습서에서는 어미가 첨가될 때 일어나는 <i/y> 교체와 관련된 철자법을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말 Y 규칙으로 파닉스 등에서 자주 인용된다. 너무나 다양한 규칙이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Eide (2011, 88)의 규칙을 소개한다. 이것은 기존 규칙에 나오는 여러 제약조건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 완성한 장점이 있다.

(14) Single vowel Y changes to I when adding any ending, unless the ending begins with I.

위의 규칙에 의하면 <y>가 <i>로 바뀌는 현상은 우선 어미가 첨가되었을 때(adding any ending)만 일어난다. 이는 어미첨가 전의 단어 원형에서 어말 위치의 <y> 철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변이형으로 바꾸는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각에서는 한 단어가 <i>로 끝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 <y>가 선택된 것으로 변화의 방향이 반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철자 규칙에 역사적인 변화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에서 장단모음 /i/를 나타내는 기본 철자는 <i>이다. <i>와 나란히 사용되던 <y>는 <i>에 밀려났으나 <i>가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서 대체 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순 원리가 이 현상의 실체이다. 즉, 어말의 <i>

9) 단모음 [i]의 실제 발음은 강세나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다른 발음 기호로 표기되기도 한다(city [sɪti]/[sɪtɪ], pitiful [pɪtɪfʊl]).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음성학적 차이는 무시하고 이들의 기본 음가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회피되는 철자이므로 이를 <y>로 교체만 하면 바른 형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여 새로 수정된 어말 Y 규칙은 훨씬 단순해진다.

(15) I changes to Y in the word final position.

따라서 통시적 분석에서는 fly, apply, pretty의 기저형 철자가 각각 fli, appli, pretti으로 설정되고 (15)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⁰⁾

(16) fli# → fly

appli# → apply

pretti# → pretty

city는 기저 철자가 citi이나 (15)에 의해 city로 되어 한 단어에서 동일 모음이 위치에 따라 철자가 달라지는 예가 된다.¹¹⁾ 이 규칙은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의 첫 요소에도 적용되어 단어 중간에 <y>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17) story# + teller → storyteller (*storiteller)

copy# + right → copyright (*copiright)

any# + one → anyone (*anione)

10) #는 어경계(word boundary)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11) 고유명사는 철자원칙을 어길 수 있으므로 Citi라는 상호가 가능하다. cf. Activ.

이 설명의 장점은 어미가 첨가되는 경우 별도의 규칙을 따로 설정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어미가 붙으면 어경계가 허물어져 어말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15)가 적용되지 않으니 원래의 <i>가 바뀔 이유가 없다. beautiful, happiness, carriage, carrier, application, readily 등의 경우 기저형이 <i>로 끝나는 것으로 보므로 원래의 형에 어미만 연결하면 된다.¹²⁾

- (18) beauti + ful → beautiful
 happi + ness → happiness
 marri + age → marriage
 appli + ance → appliance

결론적으로 어말 <i/y>이 교체되는 어말 Y 규칙은 어말 위치에서 <i>를 금지하는 제약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y>를 <i>로 전환하여 철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i>를 <y>로 바꾸는 성격의 철자법이다. 이 규칙의 예외로 flyable, dryness, slyness, shyly, spryly, wryly와 같은 극소수의 단어가 존재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형이 모두 모음 문자가 하나뿐인 단음절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영어는 어미 첨가전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¹³⁾ sly, shy, wry와 같은 단음절어가 아니면 <y>는 단어 중간에서 언제나 <i>로 바뀐다 (variable, laziness, bodily, warily). 영어철자의 최적 후보를 결

12) 한편 <y>가 나타나는 babyhood, ladylike, thirtyfold에서의 hood, like, fold 등은 일반 접사와 달리 복합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사실 like, fold는 접사가 아니라 단어로도 볼 수 있다.
 13) 현대영어의 철자법에서는 두 가지 형을 다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flier ~ flyer, drier ~ dryer, drily ~ dryly, silly ~ slyly). 이는 제약들의 충돌로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인다.

정하는 데는 기본적인 철자원칙 외에 형태적인 요인도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굴절어미 -s, -ed, -er이 첨가되는 경우를 볼 때, spies, applied, prettier 중 applied, prettier는 (18)처럼 바로 도출되지만 spy는 실지 쓰이는 형이 spis (<spi + s>)가 아니라 spies이기 때문이다.

3.2. <-ies>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spy ~ spies, baby ~ babies, candy ~ candies의 변화는 기존의 철자 규칙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대부분 <e>가 들어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복수어미는 -s인데 이 경우만 -es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 아님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리뭇실하게 넘어가고 있다. 영어에서 -es 어미는 주로 앞의 단어가 치찰음(sibilants)으로 끝날 때 사용된다(buses, foxes, churches). 이는 -s가 첨가되는 3인칭 단수 현재도 마찬가지로 apply, carry는 다른 동사들의 변화(eats, runs, walks)에 따르지 않고, applis, carris가 아닌 applies, carries로 변화한다.

이에 대한 기존 철자 규칙의 설명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y>로 끝나는 단어에 -s가 첨가될 때 <y>를 <-ies>로 바꾼다 (When we add -s to a consonant + y, we change the “-y” to “-ies)”라고 하거나, 아예 -es가 첨가된다고 보는 것이다(spy + es → spies, apply + es → applies). 어느 것도 중간에 <e>가 삽입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해답은 영어의 철자법이 발

전해온 역사와 회피 대상인 철자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온 노력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에는 COHA에서 -is로 끝나는 빈도수 상위 주요 단어들을 모아 보았다.

(19) is, his, this, Paris, Louis, Davis, Lewis, Francis, Chris, Morris, Illinois, basis, crisis, analysis, emphasis, tennis, iris, debris, thesis, metropolis, paralysis, genesis, oasis

잘 살펴보면, 처음의 기능어인 is, his, this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유명사이거나 어려운 외래어 차용어들로 평범한 단어가 없다. 이것은 영어철자법에 어말에 <is>를 오지 못하게 하는 제약도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¹⁴⁾ 원어민들은 <is>로 끝나는 단어들을 대할 때 영어의 단어가 아니라고 느끼는 말이다. is, his, this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불규칙이 허용되는 현상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영어의 불규칙 동사(go, do, take, have, get, make)들은 대부분 기본 어휘에 속한다.

<is>가 어말에 나타나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철자의 조합이 아니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제 조건이 /is/ 발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맞는 후보는 <ys>와 <ies> 뿐이다. 이 중 <ys>는 어말이 아닌데 <y>가 온 셈이므로

14) 이는 -os#도 마찬가지이다. Carlos, Santos, Laos, Marcos, pathos, cosmos, logos 등은 모두 외래어 느낌이 물씬 난다. hero, potato, tomato의 복수가 -es인 것은 같은 성격의 변화가 아닐까? 이전에는 tomatos도 쓰이기도 했으나 어말 -os 형의 거부감으로 지금의 복수변화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바람직한 철자는 아니다. 한편, <ie>는 역사적으로 어말에서 <i>의 대안 역할을 해왔고 단모음 /i/의 발음이 가능하다. 또한 영어의 <e> 철자는 여러 위치에서 약음이나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시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말 <is>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철자 원리를 위반할 변수가 없는 <ies>가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영어는 spis, spys, spies 중 제약에 걸리지 않는 마지막 형을 바른 철자로 택하고 있다.

(20) spi + s → spis → spies
 appli + s → applis → applies

현대영어의 철자에서 <ie>가 <i> 또는 <y>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aunty ~ auntie, Debby ~ Debbie 등은 상호교환적으로 쓰이고 있고, sweetie는 영국영어에서 sweety가 된다. calorie는 종종 calory로 잘못 철자 되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 차용어를 영어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s가 첨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절어미 첨가시 <ie>가 필요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studied, angrier, prettiest와 같은 형들은 기본형에 어미를 단순히 연결만 함으로서 쉽게 도출된다.

(21) studi + ed → studied
 angri + er → angrier
 pretti + est → prettiest

3.3. 모음의 선행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이중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play, they, boy의 기저형은 plai, thei, boi로 설정되지만 어말의 <i>를 제한하는 영어철자 원리에 따라 play, they, boy로 나타난다. 이들은 단어 중간의 동일한 발음이 main, vein, boil 등으로 철자 <i>를 유지하는 형과 대조된다.

이런 단어들은 <y>를 <i>로 바꾸는 기존의 어말 Y 규칙에 는 주요한 예외가 된다. <y> 앞에 다른 모음이 오는 형들은 어미가 첨가되더라도 <i>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buys, buyer, played, player). Eide의 규칙에서 단일 모음 철자 Y(Single vowel Y)라고 규제한 것도 이런 단어들에서의 적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보통은 “모음 뒤에서는 Y를 I로 바꾸지 않는다(Don't change Y to I when it comes after a vowel)”라고 규칙 화한다. 어말이 아니지만 <y>가 나타나는 이유 역시 기존의 이론이나 규칙은 모음이 선행하여서라고만 할 뿐 속 시원한 설명은 없어 학습자들은 외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영어철자원칙의 성립과정에서 <i>와 <y>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는 보완관계에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이 예들도 <i>를 쓰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y>의 도움을 빌린 것이 아닐까? play, obey, employ에 과거 어미 -ed가 첨가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우리의 분석에서 어말 <i>를 가진 기본형에 과거어미가 연결되면 plaied, obeyed, employed로 된다. 결과로 도출된 형들은 어쩐지 허용가능한 영어의 철자가 아닌 듯 보인다. 굳이 코퍼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adieu, bureau, chateau, lieutenant와 같은 외래어식 철자가 아닌 한,

현대영어 단어에서 모음 철자 세 개(또는 그 이상)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철자법의 원칙에는 이에 관한 제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제약도 18세기 표준 철자법이 확립되면서 나온 것이어서 이전에는 maie ‘may’, theie ‘they’와 같은 철자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삼연속 모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i>와 <y>의 호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y>는 모음이면서 자음 철자도 되는 양면성이 있어 <i> 대신 사용하면 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¹⁵⁾

- (22) plai + ed → plaied → played
 obei + ed → obeied → obeyed
 employ + ed → employied → employed

복수형이 만들어지는 toy의 경우(toi + s)도 tois, toies 보다 toys가 보다 영어다운 철자로 판정받는다. 어말이 <is>로 마치거나 모음이 세 개 연속되는 것이 단어 중간에 <y>를 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days, boys, keys, guys 모두 삼연속 모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수형에서 -ies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monkeys (*monkeies), journeyed (*journeied) 등의 바른 형을 결정하는데도 적용된다.

파생어미가 첨가되는 경우도 설명은 간단하다. 모음 문자가 세 개 오는 상황이 되자 <y>에 의존한 것 뿐이다.

15) eye에 발음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y> 철자가 있는 이유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OE ēage > ME eie > eye

(23) enjoī + able → enjoīable → enjoīable

conveī + or → conveīor → conveyor

그런데 joyful, keyless와 같이 접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모음 철자 세 개가 연이어 나오지도 않는데 <y>를 쓰느냐는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단어 중간에 <oi>나 <ei>를 사용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joyful, keyless라고 하게 되면 joyous, keyed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와는 상이한 형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중모음을 가진 단어들은 <y>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된 어미변화형을 가질 수 있다.

최적의 철자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day에서 -ly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daily에서도 발견된다. 이 형은 기존의 규칙으로 보면 예외의 예외가 된다. 선행 모음이 있으면 <y>로 <i>로 바꾸지 말라고 하나 실제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형을 dai로 설정하는 우리의 분석도 약간의 난관에 부딪힌다. 복수어미가 첨가될 때는 days로 <y>이고, 형용사가 되면 daily로 <i>로 바뀌는 예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i>와 <y> 사이의 선택을 영어답지 않은 철자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이중모음을 가진 다른 단어들처럼 변화하면 day의 형용사형은 dayly가 되는데 이는 <y>가 인접해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s 첨가 때와 달리 -ly를 첨가할 때만 예외가 생기는 이유이다. 영어철자법은 원형이 달라지지만 daily가 dayly 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gaily(<ga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⁶⁾

불규칙 동사형이기는 하지만 say, lay, pay의 과거형에서도 이중모음에서 <i/y>의 교체가 눈에 띈다(say ~ said, lay ~ laid, pay ~ paid). 이 현상도 위에서 살펴본 제약과 두 철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 가능하다. say를 예로 들어 보자면 동사원형에서는 (15)가 적용되어 say로 나타나지만 기본형은 sai이다. 여기에 일반적 과거형 어미 -ed가 첨가되면 saied(<sai + ed>)라는 모음 셋이 연속된 형이 나타나 이를 방지해야 한다. <i>를 <y>로 바꾸는 방식을 택하면 sayed가 되고 -aie-라는 모음 연쇄에서 가장 음이 약한 e를 탈락시키면 said가 나온다. 현대영어는 후자의 도출방식을 택하였고 통상적인 변화가 아니어서 불규칙으로 보이는 것일 뿐 철자제약을 어긴 점은 없다. slay의 과거분사형 slain의 형성과정도 slai + en > slaien > slain으로 정리될 수 있다.

3.4. <i> 앞

위에서 살펴본 Eide의 규칙 (14)에는 어미가 <i>로 시작하지 않으면(unless the ending begins with I)이라는 조건이 있다. 즉, -ing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올 경우 applying, marrying, carrying과 같이 어말이 아니지만 <y>가 유지된다. 그 이유는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만일 다른 어미가 붙었을 때 처럼 그대로 <i>로 철자 된다면 *<ii>라는 철자가 나오게 되는

16) 이런 관점에서 영어의 철자법은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철자법에는 순위가 있는 여러 제약이 작동하고 있어, 예컨대 모음 세 개의 연속이 단어 중간에서 <y>를 사용하는 것보다 심각한 위반이다. daily의 경우 <y>의 인접성이 어미 첨가 시 원형의 일관성보다 제약 순위가 높은 것으로 순위매김 된다. 이 분석은 후속 연구에 맡긴다.

데 이는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철자이다. 중복 <i> 철자는 중세영어시대 한 때 장모음 표시를 위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wiis ‘wise’, crii ‘cry’) 그 이후는 사라졌다. 현대영어의 철자 법에서는 어말의 <i>와 함께 <ii>도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다행히, 영어는 <i>를 대체할 수 있는 <y>가 있어 <i>의 연속을 막고 어형을 유지할 수 있다.

원리가 이러하므로 이 현상은 -ing뿐 아니라 <i>로 시작하는 -ish 앞에서도 꼭 같이 적용된다.

(24) appli + ing → appliing → applying
 boi + ish → boiish → boyish

memorize, agonize와 같이 -ize가 첨가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25) memori + ize → memoriize → memorize
 (*memoryize)

여기서는 <ii>의 연속을 <y>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것도 철자제약을 피하는 방식이므로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원리의 예외처럼 보이는 skiing, taxiing은 <y>로 바꾸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형(*skying, *taxying)이 나오므로 <ii>가 허용되는 경우이다. 독특한 철자를 가진 단어들은 어미변화 시에 원형을 가능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행형어미 -ing과 관련된 <i/y>의 교체에 다른 단어들과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ie>로 끝나는 단어에 -ing가 첨가되면 <ie>가 <y>로 변한다. 이것도 기존의 규칙으로는 암기할 수밖에 없지만 철자들의 속성을 알면 이렇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된다. die에 -ing가 붙으면 dieing라는 형이 나오고 이는 세 개의 모음이 이어진 형이라 고쳐져야 한다. 영어 철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ie>는 <y>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이를 적용하면 dying이 나온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die는 장모음 /i:/를 가지고 있고 <e>는 묵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제거하면 diing이 되고 <i>의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y>를 사용하여도 같은 형이 생긴다.

(26) die + ing → dieing → dying

lie + ing → lieing → lying

만일 원형이 dye라면 진행형은 dyeing이 되고 모음 문자 세개가 연속되지는 않았으므로 탈락 없이 이 형이 최종형으로 확정된다. 묵음 e 삭제 규칙을 고려하여 <e>를 빼면 dying으로 다른 의미가 되니 탈락은 더욱 일어날 수 없다.¹⁷⁾

3.5. 그리스 차용어, 영국영어, 고유명사

18세기 이후 확립된 철자법에 의해 장모음 단모음을 가리지 않고 /i(:)/ 음은 어말은 <i> 그 외의 위치에서는 <y>가 권장 철

17) -ye로 마치는 철자들은 장모음 /i:/의 철자법이 아니라 별도의 어원에서 유래하였다. aye(<ah + ye), bye(<goodbye <God be with you), dye(<OE dæg), rye(<OE ryge)

자가 되었다. 그러나 영어를 보면 단어 중간에 <i> 대신 <y>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다.

(27) abyss, analysis, analytic, apocalypse, chrysalis, cycle, cynicism, Egypt, encyclopedia, etymology, gym(adium), gymnastics, hymn, hysteria, lyrics, martyr, myth(ology), myriad, psychology, pyramid, physics, rhythm, symbol, sympathy, syntax, system, typography, tyrant, xylophone

이들은 근거 없는 임의적 철자라기보다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27)에는 일상 어휘가 아니라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단어가 많다. 또한 다수의 단어가 그리스와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 앞서 Mulcaster가 지적했듯이 그리스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들은 모음에 <y> 철자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계속 유지해야 그 어원을 알 수 있게 된다.¹⁸⁾ dys-, syn- 등의 접두사도 그리스 어원이다. 16세기 이후 영국의 문예부흥 시기에 고전어의 유행으로 유입된 차용어들은 원래의 모습이 존중되었다. stile은 라틴어인 stilus에서 나와 20세기까지 stile로도 표기되었으나 그리스어 stylos와의 영향에 의해 <y>로 철자가 변한 경우이다.

gypsy, gipsy 중 어느 쪽이 맞을까? 둘 다 쓰이지만 영국영어에서 gipsy가 좀 더 자주 사용된다. tires ~ tyres, cipher ~ cypher에서는 <y>가 영국영어, <i>는 미국영어로 지역에 따른

18) <y>는 영어 알파벳이 바탕을 둔 라틴어에는 없는 그리스어 모음이어서 '그리스 i'(i-grec (프랑스어)나 i-griega(스페인어))으로도 불린다.

<i>와 <y>의 선호도도 존재한다. 두 철자의 공통성으로 인해 어떻게 써도 발음은 같다.

고유명사에 Taylor, Cryer, Pye, Wylde처럼 <i> 대신 <y>가 나타나는 경우가 눈에 띈다.¹⁹⁾ Brian은 종종 Bryan으로 철자 되기도 한다. 대개 일반 명사는 이름으로 쓸 때 구별을 위해 철자를 약간씩 변형시켜 만드는 경향이 있다. Cooke, Younge, Frye 등에는 <c>가 첨가되었고, Forrest, Targett, Skipp는 어말의 자음을 중복시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맥락에서 보면, tailor가 이름이 되면 Taylor로 표기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i>와 <y>의 연관성을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며 발음은 동일하되 목적에 맞게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철자법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4 맺는 말

영어는 동일한 발음인데도 <i>와 <y>가 섞여서 사용되며 어미가 첨가될 때 둘 사이의 교체현상이 일어나 영어학습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이전의 발음이나 철자 규칙이 이를 다루고는 있지만 현상의 기술 정도에 그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예외에 예외가 반복되는 것도 규칙의 문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i>와 <y>의 교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반자음의 철자로도 사용되는 <y>가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는가를 조사해 봄으로써 이 변화의 근원

19) 고유명사의 복수형은 <ies>로 변하지 않고 <y>를 유지 시킨다. Marys(*Maries), Kennedys(*Kennedies).

을 밝히려 하였다. <y>는 원래 자음이 아니라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였으며 중세영어 이후 원순자질을 잃게 되면서 <i>와 사용 영역이 겹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철자 사이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불리한 환경에 놓인 <y>는 반자음 등으로 다른 용도를 개척해나갔다. 표준 철자법이 확립되기까지 어중에서는 <i>와 <y>가, 어말 위치에서는 <i>, <ie>, <y>, <ye>가 자유롭게 나타났다.

두 철자가 같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어 혼란을 겪던 영어의 철자법은 18세기가 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i>와 <y>의 위치적인 기능성이 확립되게 되었다. 영어의 철자법은 /i/ 음의 표기로 <i>를 기본으로 삼되,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는 <i>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호환성이 있었던 <y>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미가 첨가되면 <i>가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i>와 <y>는 거의 동일한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철자로서 오랫동안 상호대체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여 어말과 접사첨가 시에는 일종의 상보적인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인다. 기존 철자 규칙은 이런 관계에 관해 아무 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우리가 발견한 <i>와 <y>의 교체현상과 관련된 영어철자 원칙은 철자에 관한 몇 가지 단순한 제약(constraints)으로 귀결된다.

- A. *<i>#
- B. *<is>#

C. *<ii>

D. *VVV

즉, 영어는 어말 위치의 <i>와 <is>를 금지하며(A, B), <i>가 나란히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C). 그리고 모음 철자 세 개(이상)는 연속시키지 않는다(D). 이 간단한 제약들과 두 철자의 역사적인 배경만 이해하면 <i>와 <y>의 선택은 결코 어려운 철자법이 아니다. 영어의 철자법은 특정한 배치나 배열을 규제하는 제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철자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철자를 도출하는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철자는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통시적인 분석은 영어 철자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대부분의 다른 불규칙한 철자 변화의 근원도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통시언어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영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 일: 2022.01.21.

□ 심사 완료 일: 2022.02.06.

□ 게재 확정 일: 2022.02.09.

참고 문헌

- Bell, M. (2004). *Understanding English Spelling*. London: Pegasus Elliot Mackenzie.
- Bregelmann, F. H. (1980). "Orthoepists, Printers, and the Rationalization of English Spelling," in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79 (3).
- Carney, E. (1998). *A Survey of English Spell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rystal, D. (2013). *Spell It Out: The Singular Story of English Spelling*. London: Profile Books.
- Cook, V. (2004). *The English Writing System*. London: Hodder Education.
- Davis, M. *The 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 1810-2019*. Available online at <http://corpus.byu.edu/coha/>.
- Eide, D. (2012) *Uncovering the Logic of English: A Common-Sense Approach to Reading, Spelling, and Literacy*. Rochester: Logic of English.
- Farlex International (2017). *Complete English Spelling and Pronunciation Rules*. Coppel: Farlex International.
- Freeborn, Dennis (1998): *From Old English to standard English. A Course Book in Language Variations across Time*. 2nd ed. Basingstoke: Macmillan
- Fulford, J. (2012) *The Complete Guide to English Spelling Rules*.

- Coppell: Astoria.
- Jespersen, O. 190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Reprinted (1961) London: George Allen & Unwin].
- Lass, R. 1999. *Cambridg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1476-1776*,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llings, A. (2004). *The Spelling Patterns of English*. Munich: Lincom GmbH.
- Scragg, D. (1974). *The History of English Spelling*. Blackwell. New York: Barnes and Noble.
- Solati, A. (2013). "The Influence of English Language History on English Spelling Irregularity," in *MJAL* 5 (3). 199-207.
- Treiman, R. (1993). *Beginning to Sp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pward C. and G. Davidson. (2011). *The History of English Spelling*. Blackwell.
- Vallins, G. (1954). *Spelling*. Tonbridge: Andre Deutsch.
- Venezky, R. (1976). "Notes on the History of English Spelling," in *Visible Language*. Vol 10. 351-365.

Alternation of <I> with <Y> in English Spelling: A Diachronic approach

Dongkook Lee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NOU

English spelling is often criticized for its complexities and inadequacies. Among these, we can point to an alternation of <y> with <i> when a suffix is attached.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provide adequate explanations for this phenomenon: they could not explain wh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y> and <i> from a diachronic point of view.

The function of letter <y> became overlapped with <i> when the rounded sound of <y> was lost in Middle English. Since then, the /i(:)/ sound was represented by either <i> or <y>. <y> was used instead of <i> when minim letters were adjacent in a word.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sounds led to their interchangeability. Until in the sixteenth century <i> and <y> were generally interchangeable as in *bible* and *byble*. In the word final positions, the spellings were <ie> and <y> as in *earlie* and *early*.

Moving toward standardization, spellings became more

established in their modern form in the eighteenth century. During this process, the English spelling system created some constraints regarding the letter <i>: word-final <i> and <is> are not allowed, and two consecutive <i>'s are not acceptable. In addition, English avoids the occurrence of three vowels in a row. Whenever wrong spelling forms appear, <i> is replaced with <y> since <y> has come to be an alternative form of <i>. The changes made words easier to read and pronounce.

I propose that current English spelling rules consist of a set of constraints and alternative devices, which were the consequences of historical developments. English has always tried to choose the optimal spelling forms of lesser constraint violations. The diachronic approach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eculiar aspects of the English letters <i> and <y>.

| **Key Words** | letter <y>, alternation of <i> with <y>, standardization of English orthography, Spelling constraints